

Effects of Grit on Mindfulnes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Tendency of At-risk Adolescents

위기청소년의 그릿이 마음챙김과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

Myoung Hee Kwoen¹, Sung Je Cho²

권명희¹, 조성제²

¹ Student, Department of Culture and Arts Contents, Dongbang Culture Graduate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k2k7209@naver.com

² Professor, Department of Culture and Arts Contents, Dongbang Culture Graduate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chosj715@hanmail.net

Corresponding author: Sung Je Cho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ffects of grit of adolescents at-risk on mindfulnes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tendency.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the temporal relationships experienced by at-risk adolescents and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grit, mindfulness, and interpersonal tendencies of at-risk adolescents who enrolled and trained in psychological counseling center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70 psychological equivalent students.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applied using the SPSS progra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grit of adolescents at risk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mindfulness.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the grit of adolescents at risk had a positive effect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tendenc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grit on mindfulnes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tendency of adolescents at risk. It is considered to be a basic data for finding ways to improve mindfulnes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tendency of adolescents at risk.

Keywords: Adolescents at Risk, Grit, Mindfulness, Interpersonal Relationship Tendency

요약: 본 연구는 위기청소년의 그릿이 마음 챙김과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위기청소년이 경험하는 사회적 관계에 주목하여, 심리상담센터에 등록하여 교육을 받은 위기청소년들의 그릿, 마음챙김, 대인관계성향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심리상담 교육생 170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 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위기청소년의 그릿은 마음챙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위기청소년의 그릿은 대인관계성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위기청소년의 그릿이 마음챙김과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위기청소년의 마음챙김과 대인관계성향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료된다.

Received: October 20, 2022; 1st Review Result: December 01, 2022; 2nd Review Result: January 01, 2023
Accepted: January 31, 2023

핵심어: 위기청소년, 그릿, 마음챙김, 대인관계성향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유아기와 달리 급격한 신체적 및 정신적 변화를 하는 시기이며, 가정과 학교에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 청소년의 대인관계는 학교생활 적응에 중요한 변인이다[1]. 또한 청소년들의 학교부적응은 대인관계 문제 및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다[2][3].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부적응은 심리적 요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학업중단 및 비행, 청소년 범죄 등으로 위기상황에 많이 노출되고 있다[4]. 이러한 청소년 문제가 심화하고 위기청소년이 급증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 및 대응 방안은 매우 취약하다[5]. 따라서 위기청소년에 대한 문제와 위기의식은 심각해지며 가정과 학교, 사회적인 문제로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일반적으로 위기청소년은 ‘가정이나 학교와 같은 사회적 안전망으로부터 이탈하였거나, 이탈할 가능성이 많은 문제 청소년’을 의미한다[6]. 위기청소년의 요인은 크게 심리적 요인 및 대인관계요인(가정환경, 학교환경, 친구관계)으로 분류하고 있다[7]. 이러한 요인 중에서 일반청소년에 비행청소년들은 대인관계를 맺는 기술이 부족하다[8]. 특히, 학교 청소년의 대인관계는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관계가 좋을수록, 교사 관계가 좋을수록 비행 수준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9].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위기청소년의 대인관계는 이들의 비행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선행 연구들 타인 간의 대인관계(또래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대인관계성향(역할성향, 사회관계, 표현성향)에 대해 다루고 있는 연구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대인관계성향이란 ‘개인이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그는 타인을 어떻게 지각하고, 어떠한 행위를 하는가, 그는 타인이 무슨 행위 또는 무슨 생각을 하기를 기대하는가, 그는 타인의 행위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등에 대한 심리적 지향성’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역할성향’, ‘사회관계 성향’, ‘표현성향’을 대인관계성향의 구성요소[10]로 보았다. 특히 청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인관계성향 개선을 위한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 가족 지원 프로그램, 또래 관계 형성을 위한 다양한 대인관계 지원 프로그램 등이 요구된다[11]. 또한 위기청소년들의 대인관계가 비행 행동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12]. 이러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대인관계는 청소년의 위기상황 개선에 영향을 미치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의 대인관계와 관련해서 많이 연구되어 온 변인 중 하나는 그릿이다[13-15]. 청소년 시기의 대인관계는 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되며, 학교 내에서 교사, 또래와의 대인관계를 통해 획득된 청소년의 긍정적인 심리경향은 학습 관련 동기로 연결된다[14]. 또한 청소년의 심리경향에 따라 대인관계성향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대인관계 성향은 심리경향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의 심리경향인 그릿은 대인관계성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7]. 또한, 대인관계성향은 그릿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8]. 따라서 청소년 대인관계성향과 그릿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릿은 ‘장기적인 목표를 향한 열정과 끈기’로 정의되며, 노력지속 (perseverance of effort)와 흥미유지(consistency of effort)의 두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19]. 그릿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학생의 그릿은 학교에서의 친구들의 지지와 즐거운 반 분위기, 가정에서 새롭고 다양한 경험 권장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0]. 이는 가정 및 학교환경 대부분 변수는 청소년들의 그릿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개인요인과 부모요인, 학교요인이 그릿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1]. 한편 대학생의 대인관계와 그릿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2]. 특히 그릿 수준 낮은 청소년들은 과제나 어려움 상황에서 협력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대인관계능력이 낮게 나타났다는 것이 확인되었다[23]. 이 의미는 그릿은 청소년의 대인관계성향에 중요한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기청소년들에게 학업중단 전에 그릿 개입을 통해서 대인관계성향을 높이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방안과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청소년의 그릿과 관련해서 중요한 변인은 마음챙김이다. 마음챙김은 ‘개인이 의도적으로 현재 순간에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며, 마음챙김은 청소년들의 부정 심리를 감소시키고 긍정 심리를 증가시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므로[24], 위기청소년의 심리성향을 개선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릿은 마음챙김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그릿과 심리적 소진, 마음챙김과 심리적 소진 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25]. 이러한 연구결과는 위기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마음챙김을 향상할 방안으로 그릿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들을 기반으로 위기청소년의 그릿이 대인관계성향과 마음챙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교육현장에서 위기청소년의 마음챙김과 대인관계성향을 높일 수 있는 개입 방향을 확인하고, 다양한 대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위기청소년의 그릿이 마음챙김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둘째, 위기청소년의 그릿이 대인관계성향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상북도 K시에 소재한 심리상담센터를 임의 표본집단 하여,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2022년 3월 7일부터 2022년 6월 10일까지 설문 조사하였다. 연구 대상을 심리상담센터를 한정된 이유는 연구의 목적이 일반 청소년 대상 아닌 위기청소년 대상이기 때문이다. 또한 설문지는 대상자에게 설문 목적과 설문지 기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지 작성 후 연구자가 직접 회수하였다. 연구 자료는 총 190부를 배포하여 180부를 회수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지 10부를 제외한 170부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2.2 연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일반적 특성 문항은 3문항, 그릿은 8항, 마음챙김은 20문항, 대인관계성향은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 특성에 관한 내용은 성별, 학년 등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그릿척도는 Duckworth(2006)가 개발한 미국의 아동용 그릿척도(8-Item Grit Scale for Children)를 김희명·황매향(2015)이 한국판 아동용 그릿척도로 타당화 척도를 사용한 고용자[26]척도이다. 이 척도는 흥미유지(4문항), 노력지속(4문항)의 총 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모든 문항의 점수를 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관심과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향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총 8개의 문항 중 흥미유지(consistency of interests) 4문항은 역 코딩하였다. 고용자(2022)의 연구에서는 흥미유지가 .668, 노력지속이 .748, 전체신뢰도는 .707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흥미유지가 .721, 노력지속의 신뢰도는 .743, 전체 신뢰도는 .823로 신뢰도 면에서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마음챙김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박성현(2006)이 제작한 마음챙김 척도(Mindfulness Scale)를 사용한 김현주[27] 척도이다. 이 척도는 4가지 요인인 현재자각, 주의집중, 비판단적 수용, 탈중심적 주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0문항이다. 마음챙김 척도는 Likert식 5단계 평정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매우 그렇다'까지)로 측정하였으며, 전체 문항을 역 채점한 후 점수가 많을수록 마음챙김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현주(2015)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3이며, 하위요인별 신뢰도(Cronbach's α)는 .84~.78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10이며, 하위요인별 신뢰도(Cronbach's α)는 .752~.86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Lary의 대인관계 행동모형, Schutz의 FIRO(Fundamental Interpersonal Relations Orientation), Krech 외가 밝힌 대인적 반응 특성을 참조하여 안범희(1984)가 재구성하고, 이를 기초로 김정원(2003)이 수정한 것을 박금숙[28] 연구에서 대인관계성향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이를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성향 척도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3가지 하위영역으로 역할성향 4문항, 사회관계성향 7문항, 표현성향 6문항 등 총 17문항이다. Likert식 5점 척도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적 질문의 문항은 역 코딩을 했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대인관계성향의 정도가 낮은 것을 의미하고, 높을수록 강하다는 것을 나타냈다. 이 척도를 사용한 박금숙(2015)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값이 모두 0.63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역할 성향 0.630, 사회관계성향은 0.816, 표현 성향은 0.667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성향의 Cronbach's alpha 값이 0.843로 나타났으며, 하위 영역 가운데 역할 성향 0.748, 사회관계의 0.766, 표현 성향은 0.785로 기존 연구에 비해 차이가 별로 없었다.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이 최소 수준인 .60 이상으로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2.3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 분석을 위해 수집된 자료는 통계프로그램 SPSS 22.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첫째, 각 측정 도구의 평균, 표준편차, 주요 변수 간의 관련성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 통계 및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둘째, 각

측정 도구의 타당도 검증 및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셋째, 주요 변수인 사회적 지지, 심리적 안녕감 간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3. 분석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성별은 남학생이 47명(27.6%)으로 여학생 123명(72.4%) 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고등학생이 121명(71.1%)으로 중학생 49명(28.9%)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 맞벌이를 여부를 살펴보면, 예 158명(92.9%)으로 아니오 12명(7.1%)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하여 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Table 1] Reliability of Measuring Tools

분류		합계(N=170)	
		빈도	비율(%)
성별	남학생	47	27.6
	여학생	123	72.4
학년	중학생	49	28.9
	고등학생	121	71.1

3.2 각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측정 변수에 대한 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릿은 3.40으로 나타났으며, 흥미유지는 3.35, 노력지속은 3.45로 나타났다. 마음챙김은 3.21로 나타났으며, 탈 중심이 3.24로 가장 높았고, 현재자각과 주의집중이 3.20으로 낮게 나타났다. 대인관계는 3.26으로 나타났으며, 표현성향이 3.31로 가장 높았고, 역할성향이 3.23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왜도는 첨도 값은 기준값을 만족하여 변수의 정규성이 확보되었다.

[표 2] 측정 변수에 대한 기술 통계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n Measurement Variables (n=170)

변인변인	하위요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그릿	흥미유지	3.35	.46	-1.88	1.43
	노력지속	3.45	.48	-1.85	1.53
	(전체)	3.40	.42	-.46	1.58
마음챙김	현재자각	3.20	.48	-1.16	1.19
	주의집중	3.20	.50	-.93	.94

	비관수용	3.21	.55	-1.14	1.33
	탈중심	3.24	.54	-.88	.66
마음챙김	(전체)	3.21	.44	-1.59	2.72
	역할성향	3.23	.56	-1.63	1.30
	사회관계	3.25	.53	-.13	2.33
	표현성향	3.31	.49	-.29	.22
대인관계성향	전체	3.26	.44	-.85	1.47

3.3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측정 변수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관계는 [표 3]과 같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릿, 마음챙김, 대인관계성향의 하위변수 간에는 모두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r=0.169-0.753$).

[표 3]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

[Table 3] Correlation between Key Variables

	흥미유지	노력지속	현재자각	주의집중	비관수용	탈중심	역할성향	사회관계	표현성향
흥미유지	1								
노력지속	.579***	1							
현재자각	.318***	.273***	1						
주의집중	.364***	.274***	.645***	1					
비관수용	.291***	.302***	.699***	.639***	1				
탈중심	.299***	.169*	.653***	.581***	.556***	1			
역할성향	.685***	.525***	.250**	.338***	.171*	.211**	1		
사회관계	.753***	.455***	.304***	.413***	.430***	.326***	.569***	1	
표현성향	.660***	.560***	.207**	.388***	.308***	.242**	.557***	.555***	1

* $p<.05$, ** $p<.01$, *** $p<.001$

3.4 회귀분석 결과

1) 그릿이 마음챙김에 미치는 영향

그릿이 현재자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10.2%로 나타났고, $F=10.641$ 로서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그리고 Tolerance 값은 0.1 이상, VIF 값은 10.0 이하로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았고, $D-W=1.697$ 로서 잔차의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흥미유지($t=2.688$, $p<0.01$)가 현재자각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릿의 하위요인 중에서 흥미유지는 마음챙김의 하위요인 중에서 현재자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릿이 현재자각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그릿이 주의집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12.9%로 나타났고, $F=13.461$ 로서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그리고 Tolerance 값은 0.1 이상, VIF 값은 10.0 이하로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았고, $D-W=1.760$ 로서

잔차의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흥미유지($t=3.509, p<0.01$)가 주의집중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릿의 하위요인 중에서 흥미유지는 마음챙김의 하위요인 중에서 주의집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릿이 마음챙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4] 그릿이 현재지각에 미치는 영향

[Table 4] The Effects of Grit on Current Perception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Collinearity Statistics	
	B	Std. Error	Beta			Tolerance	VIF
(상수)	1.892	.289		6.557	.000		
현재자각							
흥미유지	.253	.094	.240	2.688**	.008	.665	1.503
노력지속	.134	.089	.134	1.502	.135	.665	1.503
$R^2=.113, \text{Adj } R^2=.102, F=10.641^{***}, D-W=1.697$							

** $p<.01$, *** $p<.001$

[표 5] 그릿이 주의집중에 미치는 영향

[Table 5] The Effect of Grit on Attention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Collinearity Statistics	
	B	Std. Error	Beta			Tolerance	VIF
(상수)	1.731	.294		5.897	.000		
주의집중							
흥미유지	.335	.096	.309	3.509**	.001	.665	1.503
노력지속	.099	.091	.096	1.087	.278	.665	1.503
$R^2=.139, \text{Adj } R^2=.129, F=13.461^{***}, D-W=1.760$							

** $p<.01$, *** $p<.001$

그릿이 비판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10.1%로 나타났고, $F=10.456$ 으로서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그리고 Tolerance 값은 0.1 이상, VIF 값은 10.0 이하로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았고, $D-W=1.724$ 로서 잔차의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노력지속($t=2.243, p<0.05$)이 비판수용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릿의 하위요인 중에서 노력지속은 마음챙김의 하위요인 중에서 비판수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릿이 사회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그릿이 탈중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7.9%로 나타났고, $F=8.211$ 로서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그리고 Tolerance 값은 0.1 이상, VIF 값은 10.0 이하로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았고, $D-W=1.593$ 으로서 잔차의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흥미유지($t=3.346, p<0.01$)가 탈중심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릿의 하위요인 중에서 흥미유지는 마음챙김의 하위요인 중에서 탈중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릿이 탈중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6] 그릿이 비판수용에 미치는 영향

[Table 6] The Effect of Grit on Critical Acceptance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Collinearity Statistics	
	B	Std. Error	Beta			Tolerance	VIF
(상수)	1.726	.328		5.258	.000		
비판수용							
흥미유지	.209	.107	.175	1.952	.053	.665	1.503
노력지속	.228	.102	.201	2.243*	.026	.665	1.503

R²=.111, Adj R²=.101, F=10.456***, D-W=1.724

*p<.05, ***p<.001

[표 7] 그릿이 탈중심에 미치는 영향

[Table 7] The Effect of Grit on Decentration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Collinearity Statistics	
	B	Std. Error	Beta			Tolerance	VIF
(상수)	2.072	.326		6.362	.000		
탈중심							
흥미유지	.355	.106	.303	3.346**	.001	.665	1.503
노력지속	-.007	.101	-.006	-.071	.943	.665	1.503

R²=.090, Adj R²=.079, F=8.211***, D-W=1.593

p<.01, *p<.001

2) 그릿이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

그릿이 역할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48.8%로 나타났고, F=81.607로서 회귀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그리고 Tolerance 값은 0.1 이상, VIF 값은 10.0 이하로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았고, D-W=1.838로서 잔차의 자기 상관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흥미유지(t=8.497, p<0.001), 노력지속(t=2.864, p<0.01)이 역할성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릿의 하위요인 중에서 흥미유지, 노력지속은 대인관계성향의 하위요인 중에서 역할성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릿이 역할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8]와 같다.

[표 8] 그릿이 역할성향에 미치는 영향

[Table 8] The Effect of Grit on Role Orientation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Collinearity Statistics	
	B	Std. Error	Beta			Tolerance	VIF
(상수)	.086	.255		.339	.735		
역할성향							
흥미유지	.705	.083	.573	8.497***	.000	.665	1.503
노력지속	.226	.079	.193	2.864**	.005	.665	1.503

R²=.494, Adj R²=.488, F=81.607***, D-W=1.838

p<.01, *p<.001

그릿이 사회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56.2%로 나타났고, $F=109.540$ 으로서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그리고 Tolerance값은 0.1이상, VIF값은 10.0이하로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았고, $D-W=1.416$ 으로서 잔차의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흥미유지($t=11.792$, $p<0.001$)가 사회관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릿의 하위요인 중에서 흥미유지는 대인관계성향의 하위요인 중에서 사회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릿이 사회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9] 와 같다.

[표 9] 그릿이 사회관계에 미치는 영향

[Table 9] The Impact of Grit on Social Relationships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Collinearity Statistics	
	B	Std. Error	Beta			Tolerance	VIF
(상수)	.259	.223		1.161	.247		
사회관계							
흥미유지	.857	.073	.736	11.792***	.000	.665	1.503
노력지속	.033	.069	.030	.473	.637	.665	1.503

$R^2=.567$, Adj $R^2=.562$, $F=109.540$ ***, $D-W=1.416$

*** $p<0.001$

그릿이 표현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47.8%로 나타났고, $F=78.268$ 로서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그리고 Tolerance 값은 0.1 이상, VIF 값은 10.0 이하로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았고, $D-W=1.347$ 로서 잔차의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흥미유지($t=7.416$, $p<0.001$), 노력지속($t=3.928$, $p<0.001$)이 표현성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릿의 하위요인 중에서 흥미유지, 노력지속은 대인관계성향의 하위요인 중에서 표현성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릿이 사회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10]와 같다.

[표 10] 그릿이 사회관계에 미치는 영향

[Table 10] The Effect of Grit on Social Relationships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Collinearity Statistics	
	B	Std. Error	Beta			Tolerance	VIF
(상수)	.588	.222		2.653	.009		
표현성향							
흥미유지	.535	.072	.505	7.416***	.000	.665	1.503
노력지속	.270	.069	.268	3.928***	.000	.665	1.503

$R^2=.484$, Adj $R^2=.478$, $F=78.268$ ***, $D-W=1.347$

*** $p<0.001$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위기청소년의 그릿이 마음챙김과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청소년의 그릿은 마음챙김과 대인관계성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그릿의 하위요인 중에서 흥미유지가 대인관계성향에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노력지속 순으로 영향력이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위기청소년이 지각하는 그릿의 하위요인 중에서 흥미유지, 노력지속요인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성향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청소년이 아닌 청소년 보호기관인 위탁한 심리상담센터에 교육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기존 연구 결과와 달리 그릿의 하위 요인인 흥미유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기청소년의 그릿(흥미유지, 노력지속)은 대인관계성향(역할성향, 표현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릿의 흥미유지가 대인관계성향의 사회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릿이 대인관계성향에 높게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생의 학업적 그릿은 대인관계 성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29]는 본 연구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였다. 또한 유아 교사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보면, 그릿은 자기조절능력, 긍정성, 대인관계능력에 큰 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30]은 본 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한편, 초등학생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그릿은 또래관계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이 나타났다[31]는 결과와 부분적으로 맥락을 같이하였다. 이는 그릿의 특성으로 대인관계(또래 관계)도 노력을 통해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양질의 또래 관계가 구축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위기청소년의 그릿은 대인관계성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대인관계성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은 청소년이 지각하는 그릿의 하위요인 흥미유지, 노력지속요인을 감안한 효과적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그릿(흥미유지)이 마음챙김(현재자각, 주의집중, 탈중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릿의 하위요인 중에서 노력지속이 마음챙김의 하위요인 중에서 비판수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흥미유지는 마음챙김에 높게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그릿은 마음챙김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그릿과 심리적 소진, 마음챙김과 심리적 소진 간에는 유의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25]는 연구 결과는 본 연구를 지지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보면, 위기청소년의 그릿이 마음챙김과 대인관계성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마음챙김과 대인관계성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은 개인 심리적 변인인 그릿을 감안한 상담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기청소년의 심리교육이 요구된다.

위기청소년의 그릿은 마음챙김과 대인관계성향 향상을 위해 중요한 변인이고, 이러한 상담교육을 통해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친다는 것을 확인되었다. 따라서 위기청소년의 그릿이 마음챙김과 대인관계성향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본 연구결과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위기청소년의 그릿이 마음챙김과 대인관계성향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위기청소년의 그릿은 마음챙김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를 반영하여 이들의 학업 중단 및 비행, 청소년 범죄 등으로 위기상황에 대한 지원과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위기청소년이 현재의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마음챙김 요인을 통해

이들이 정상적인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챙김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위기청소년의 대인관계성향에 그릿이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위기청소년의 그릿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위기청소년이 그릿의 하위요인 중에서 흥미의지 및 노력지속 요인에 통해 심리적 안정성을 갖는 것은 다양한 위기상황에서도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위기청소년의 상황과 특성에 고려하여 해결 중심 집단상담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와 이들의 책임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론에 대한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경상북도 K시에 소재의 지역상담센터의 위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표본집단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연구 결과의 일반화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표본집단을 확대하여 위기청소년의 개인적인 변인을 고려하고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향후 위기청소년의 관심과 흥미가 높은 그릿 상담교육 프로그램개발을 활용한 대인관계성향을 향상할 개선방안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제안한다.

References

- [1] H. J. Kim, J. W. Choi, M. S. Lee, Madhu Sudhan Atterraya, Relationship and Adapting School Life: Focus on Moderating Effect of Self-Esteem, *The Journal of Eurasian Studies*, (2012), Vol.9, No.1, pp.273-298.
DOI: <http://dx.doi.org/10.31203/aepa.2012.9.1.013>
- [2] E. B. Chang,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Problem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Academic Burnout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19), Vol.26, No.7, pp.29-56.
DOI: <http://dx.doi.org/10.21509/KJYS.2019.07.26.7.29>
- [3] K. S. Lee, H. S. Park,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volunteer time in the effect of school maladjustment on juvenile delinquency through depression, *Youth Facility and Environment*, (2018), Vol.16, No.2, pp.79-91.
- [4] C. N. Park, J. S. Do, Factors Affecting the Intention of SchoolDropout, *Korean Journal of Youth*, (2003), Vol.10, No.3, pp.207-238.
UCI: G704-000387.2003.10.3.010
- [5] M. S. Kim, C. H. Koo, B. D. Sohn, An Exploratory Study on At-Risk Youth Support Services, *Journal of Korean Criminological Association*, (2022), Vol.16, No.2, pp.109-126.
DOI: <https://doi.org/10.29095/JKCA.16.2.6>
- [6] H. S. Park,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roblem Solving Competence of Crisis Adolescents in Youth Shelter through Grounded Theory, Myongji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22)
Available from: <http://www.riss.kr/link?id=T16078947>
- [7] T. K.Hong, J. H. Ryu, Analysis of Differences in Delinquency across Gender and Age,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2011), Vol.8, No.3, pp.113-138.
DOI: <http://dx.doi.org/10.25023/kapsa.8.3.201111.113>
- [8] W. S. Lim, H. S. Choi, The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 on Juvenile Delinquents Self-Esstem, *The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Review*, (2010), Vol.12, No.3, pp.147-170.
UCI: G704-002121.2010.12.3.006
- [9] G. S. Choi, S. O. Lim, The Effects of School Adolescents Personal Relationship on Delinquency: Focusing on Mediator Effect of Game Addictio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7), Vol.17, No.6, pp.180-193.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7.17.06.180>
- [10] B. H. An, Validation study for scales relating to interpersonal relations adequacy and interpersonal relations

- disposition, Yonsei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1985)
Available from: <http://www.riss.kr/link?id=T743086>
- [11] J. D. Yang, Y. K. Park, Impact of Family and Peer Support on Self-Efficacy and Juvenile Delinquency,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2009), Vol.14, No.4, pp.211-235.
UCI: G704-001932.2009.14.4.014
- [12] S. H. Hong, H. S. Kim, The Study on Adolescents Misdemeanor Behavior: Mediation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s, *Studies on Korean Youth*, (2007), Vol.18, No.3, pp.93-216.
UCI: G704-001385.2007.18.3.005
- [13] K. W. Jung, S. H. Hae, The Effect of High School Students' Social Support on Grit : The Mediating Effect of Academic Motivation, *Journal of Wellness*, (2020), Vol.15, No.4, pp.243-257.
DOI: <http://dx.doi.org/10.21097/ksw.2020.11.15.4.243>
- [14] H. J. Lee, An exploratory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ypes of adolesc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school and their academic helplessness and grit, Ewha Womans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21)
Available from: <http://www.riss.kr/link?id=T15736450>
- [15] H. R. Kim, J. A. Choi, J. J. Um, Influence of Adolescent Grit, Self-determinatio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Relationship Support and Teachers Autonomy Support and Passion,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2021), Vol.38, No.4, pp.1183-194.
DOI: <http://dx.doi.org/10.12925/jkocs.2021.38.4.1183>
- [16] H. S. Park,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roblem Solving Competence of Crisis Adolescents in Youth Shelter through Grounded Theory, Myongji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22)
Available from: <http://www.riss.kr/link?id=T16078947>
- [17] E. S. Park, A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 of Growth Mindse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rit of Youth Who Experienced Youth Activities and Their Adaptation to School Liv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22), Vol.23, No.7, pp.427-437.
DOI: <https://doi.org/10.5762/KAIS.2022.23.7.427>
- [18] H. J. Lee, M. R. Jo, N. K. Kang, J. H. Yang, H. I. Shim, J. H. Hwang, The effects of grit,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life-stress of undergraduate students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22), Vol.22, No.10, pp.683-693.
DOI: <http://dx.doi.org/10.22251/jlcci.2022.22.10.683>
- [19] A. L. Duckworth, C. Peterson, M. D. Matthews, D. R. Kelly,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007), Vol.92, No.6, pp.1087-1101.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92.6.1087>
- [20] M. S. Kim, S. H. Lee, S. H. Paik, Y. S. Choi, The environmental factors affecting students' grit scores and their differences across sex and grade,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5), Vol.15, No.5, pp.297-322.
UCI: G704-001586.2015.15.5.009
- [21] Y. A. Jang, S. Y. Kim,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Adolescent's Grit: Individual Factor, Parent Factor, School Factor,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2021), Vol.19, No.4, pp.57-64.
DOI: <https://doi.org/10.22678/JIC.2021.19.4.057>
- [22] J. C. Kang, S. H. Park, The Mediating Effect of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on Academic Achievement with Respect to Ego Resiliency and Grit among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20), Vol.27, No.10, pp.239-268.
DOI: <http://dx.doi.org/10.21509/KJYS.2020.10.27.10.239>
- [23] M. E. Tao, C. K. Kim, A Structural Relationship Analysis of Grit, Cooperation, Academic helplessness and Satisfaction with Life by Adolescents,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2021), Vol.37, No.4, pp.61-79.
DOI: <http://dx.doi.org/10.33770/JEBD.37.4.3>
- [24] Y. R. Kim, D. H. Ahn, Adolescents' Mindfulness: Its Relationships with Positive and Negativ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5), Vol.17, No.1, pp.347-363.

UCI: G704-000930.2015.17.1.010

- [25] I. H. Baek, The Relationship between Novice Counselor's GRIT and Burnout: The Mediation Effects of Mindfulness, Catholic University, Master Thesis, pp.42-43, (2018)
- [26] Y. J. Ko, Influence of Youth After School Academy of Grit on Youth Activity Competence - The Mediating Effect of Youth Worker Trust -, Myongji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19)
Available from: <http://www.riss.kr/link?id=T16079763>
- [27] H. J. Kim, The Differences between Variables, Mindfulness, Alexithymia, and Somatization, according to Each Positive Mental Health Type in Adolescents, Kyungsoong of University, Master Thesis, (2015)
Available from: <http://www.riss.kr/link?id=T13835949>
- [28] K. S. Park,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their experience in bullying or being bullied :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control, Hansei University, Master Thesis, (2015)
Available from: <http://www.riss.kr/link?id=T13771239>
- [29] K. B. Kim, I. Kim, J. S. Baek, The influence of the motivation to participate in the AI program on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academic gri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Physical Education, (2022), Vol.27, No.1, pp.25-38.
- [30] M. R. Han, G. S. Kim, The Effect of Grit and Resilience of Early Childhood Teachers on Teacher Self-Efficacy, The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2018), Vol.27, No.3, pp.411-427.
DOI: <http://dx.doi.org/10.17643/KJCE.2018.27.3.21>
- [31] Y. J. Lee, D. J. Kim, The mindset and peer relationship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grit and self-regulation, Korean Society of Physical Education, (2019), Vol.24, No.2, pp.209-222.
DOI: <http://dx.doi.org/10.15831/JKSSPE.2019.24.2.209>